



1. 오늘은 웬지...

“봄은 가만히 오지 않는다. 봄은 소란스럽게 온다. 얼음장이 갈라지는 소리, 그 밑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연둣빛 싹이 움트고 꽃망울이 맺히는 소리... 그렇다. 봄은 전쟁과 같이 온다. 천지간에 봄은 점령군처럼 밀려오는 것이다”

화가 김병중 선생의 글 중 일부입니다.

품속을 파고드는 봄바람이 불어오면 보드라운 버들가지에도 곧 물이 오를 것입니다. 봄비라도 촉촉이 내리는 날이면 누구나 “오늘은 ‘웬지’ 연인과 함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울렁거릴 거예요.

이럴 때 흔히 쓰는 ‘웬지’는 틀린 표현입니다. ‘웬지’가 맞습니다. ‘웬’과 ‘웬’은 발음이 거의 같기 때문에 혼동하기 일쑤입니다.

‘웬지’는 ‘왜 그런지 모르게’ ‘무슨 까닭인지’를 뜻하며 ‘왜인지’가 줄어든 말입니다. “그녀를 만나면 웬지 마음이 편안해진다” “지금도 가끔씩 그때 일을 생각하면 웬지 기분이 좋아져 혼자 슬며시 웃곤 한다”처럼 쓰입니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의 뜻을 가진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는 조사가 붙지 않고 어미 활용도 하지 않습니다.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이게 웬 떡이냐”처럼 쓰이는데, 이 경우 ‘웬’을 ‘웬’으로 적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웬걸, 웬만큼, 웬일’은 우리말에 없는 표현입니다. ‘웬걸, 웬만큼, 웬일’이 바른 표기입니다.

쉽게 구분하려면 ‘어찌 된, 어떤’으로 바꿀 수 있을 때는 ‘웬’을, ‘무슨 까닭인지’로 바꿀 수 있을 때는 ‘웬지’로 쓰면 됩니다.

2. 가정의 달에 ‘안갯름’을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중)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지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박목월 <어머니의 눈물> 중)

[7차시] 말과 문학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속으로는 눈물 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한 두 편의 시를 통해 효(孝)와 관련해 생각나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다 자란 까마귀가 거동할 수 없는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는 고사성어 ‘반포지효(反哺之孝)’와 같은 뜻의 우리말로 ‘안갠음’이 있습니다.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은 말하는데, 간혹 ‘앙갠음’과 혼동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는 ‘안갠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는지 잘 몰라 생기는 실수입니다.

“안갠음은 못할지언정 제 부모를 내다 버리다니!”

“지난한 시절 너에게 당한 설움을 언젠가 반드시 앙갠음하겠다”

위 문장의 쓰임새에서 보듯 ‘안갠음’은 부모를 정성스럽게 섬긴다는 좋은 의미인 반면 ‘앙갠음’은 남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나도 그에게 복수나 보복을 하겠다는 무서운 말이랍니다. 정확히 구분해 사용해야 함을 물론이고 발음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갠음’ 발음은 역시 여유를 갖고 혀끝을 윗니 뒤 끝에 대고 길게 ‘안-갠음’이라고 하면 된답니다.

3. 어떤 ‘개인(?)’ 날

‘어떤 개인 날’. 우리에게 참으로 낯익은 글귀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 글귀는 우리네 삶의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렇기에 동서를 불문하고 많은 예술가의 사랑을 받았나 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중 <어떤 개인 날>, 황동규 시집 「어떤 개인 날」, 노항립의 시집 「어떤 개인 날」 등 이 글귀를 사용한 예술 작품이 많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 줍니다. 이 좋은 말 속에도 옥에 티가 있습니다.

표기법상 ‘개인’은 ‘갠’의 잘못입니다. 기본형이 ‘개이다’가 아니라 ‘갠다’이므로 ‘개니/개어/갠’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갠 날’이 바른 표기입니다.

이렇듯 기본형에 ‘-이-’가 들어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말들이 꽤 눈에 띄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설레는 마음

목이 메이다->목이 메다

해매이는 발길->해매는 발길

몇 번이고 되뇌었다->몇 번이고 되뇌었다

살을 에이는 추위->살을 에는 추위



‘어떤 개인 날’을 ‘어떤 낱 날’로 고쳐 놓으면 웬지 감칠맛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적 언어로 쓰인 방언인 ‘(봄)내음, 나래’를 표준말 ‘(봄)냄새, 날개’로 바꿔 놓았을 때 느끼는 기분처럼 말이죠.

그러나 ‘어떤 개인 날’이 시적 허용에 따라 널리 사랑받고는 있지만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라는 점을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4. 가까와? 가까워?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조지훈 시인의 <승무> 중 한 구절입니다.

위 글에서 ‘고와, 서러워’는 ‘곱다, 서럽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곱+아’ ‘서럽+어’ 형태에서 ‘고와, 서러워’가 된 것이죠. 맞춤법이 바뀐 후 이런 유형의 단어들(ㅂ불규칙 용언)에서 혼란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제 ‘~와’를 쓰고 어떤 때 ‘~워’를 쓰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맞춤법 개정 전에는 이런 경우 모음조화 원칙에 따라 ㅂ 앞의 말이 ‘ㅏ, ㅑ’일 때는 ‘~와’가 붙고 그 외에는 ‘~워’가 붙었습니다. 즉 ‘가깝다’의 경우 ㅂ 앞이 ‘까’여서 ‘ㅏ’이므로 ‘가까와’로 쓰고, ‘즐겁다’의 경우는 ㅂ 앞이 ‘ㄴ’이므로 ‘즐거워’가 바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모음조화 원칙이 점차 깨지면서 ‘~와’보다 ‘~워’ 형태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게 되자 개정 맞춤법에서는 ‘~워’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곱다’처럼 ㅂ 앞이 ‘ㅏ’로 된 외글자일 경우에만 ‘~와’를 쓰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와, 가까와, 괴로와’가 아니라 ‘아름다워, 가까워, 괴로워’가 바른 표기가 된 거죠. ‘돕다’의 경우 ‘곱다’와 마찬가지로 ㅂ 앞이 ‘도’ 한 글자이고 ‘ㅏ’로 이뤄져 있으므로 ‘도와’가 되는 것입니다.



* 심화학습

1) ‘ㄴ불규칙 용언’이란 무엇일까요?

‘ㄴ불규칙 용언’이란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ㄴ’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 -어’ 앞에서 ‘오/우로 바뀌는 용언을 말합니다.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줄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간의 끝소리가 ‘ㄴ’인 ‘돕다’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돕고, 돕자, 돕더니’가 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와, 도우니, 도우면’으로 어간 ‘ㄴ’이 ‘오/우’로 바뀌죠. 이러한 현상을 ㄴ불규칙 활용이라 합니다.

이러한 활용은 어간에 ‘ㄴ’받침을 가진 일부의 용언에서만 일어납니다. 동사에는 ‘돕다, 굽다, 깎다, 늙다, 줍다’ 등이 있고, 형용사에는 ‘곱다, 답다, 맵다, 춥다, 사납다’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ㄴ불규칙용언은 동사와 형용사에 두루 나타납니다. ‘ㄴ’받침을 가지고 있는 ‘엷다, 잡다, 뽑다’ 등은 규칙적으로 활용하니 별도로 알아 두도록 합시다.

2) ‘모음조화’란 무엇일까요?

‘모음조화’란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 음절의 모음이 앞 음절 모음의 영향을 받아 아주 같거나 그에 가까운 성질의 모음이 어울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인 거죠. 모음조화 원칙에 따라 앞의 모음이 ‘ㅏ, ㅑ’일 때는 ‘ㅏ’ 계열의 모음이, 앞의 모음이 ‘ㅓ, ㅕ’일 때는 ‘ㅓ’ 계열의 모음이 연결된답니다.

5. ‘줘어 주다’인가, ‘줘여 주다’인가

“조조는 관운장을 흠모하여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온갖 예의를 갖추다. 미녀 열 명을 보내어 관운장을 모시게 하고, 배 아래까지 드리워진 수염을 보호하는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여포가 생전에 땀던 온몸이 불꽃처럼 붉고 매우 웅건한 적토마의 고삐를 관운장의 손에 쥐어 준다”



「삼국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후 적토마는 관운장과 늘 함께하다가 관운장이 마충에게 생포돼 죽은 뒤 마충의 소유가 됐으나 먹이를 거부하고 따라 죽었다고 하죠.

앞에서 인용한 글에서 ‘쥐어 준다’는 ‘쥐여 준다’로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쥐여 주다’는 ‘쥐다’의 사동사 ‘쥐이다’에 ‘~어 주다’가 연결된 형태(쥐이+어 주다)입니다.

예컨대 ‘밥을 먹여 주다’에서는 내가 밥을 먹는 주체지만, ‘밥을 먹여 주다’라고 할 때는 남에게 밥을 먹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손에 무엇이든 쥐도록 해 줄 경우에는 ‘쥐다’의 사동사 ‘쥐이다’를 써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나의 손에 조그맣게 접힌 쪽지를 슬그머니 쥐여 주었다” “어머니는 시댁으로 돌아가는 딸에게 아버지 몰래 20만원을 쥐여 보냈다”와 같이 쓴답니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쥐어 주다’는 ‘내가 쥐는 것’, ‘쥐여 주다’는 ‘남이 나에게 쥐도록 만드는 것’!

6. ‘허접스레기’와 ‘허접스럽다’

“우리의 통일은...남쪽의 피눈물과 북쪽의 피눈물이 만나 굵아져 모든 군사장치와 허접스레기를 쓸어내는 것입니다”

『백기완의 통일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위 문장에 등장하는 ‘허접스레기’. 약간은 생소한 단어이지요. 문맥으로 보아 ‘쓸모없는, 거추장스러운 그 무엇’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허접스레기를 잘못 쓴 것이겠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 빠지고 난 뒤에 남은 허름한 물건’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아래 문장을 보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딸이면 몰라도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가 쓰던 구닥다리 물건들이 허접스레기로 보일 수도 있다”

“허접스레기에 불과한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편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들다’란 뜻으로 ‘허접스럽다’를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때는 ‘허접스럽다’가 맞는 말입니다. ‘허접스레기’와 내용상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철자가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허접스레기’는 ‘허접스레기’를 잘못 발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소년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상대의 행동을 비난할 때 ‘허접 플레이’ ‘허접 짓 하지 마라’ 등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허접(許接)’은 ‘도망친 죄수나 노비 등을 숨겨 목계 하던 일’을 뜻하는 명사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참고로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는 ‘허접스레기’와 같은 의미로 ‘허접쓰레기’가 올라 있습니다.